

## 고객기업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은 감사보수에 반영되는가?

이우재(주저자)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woojae.lie@gmail.com)

최승욱(교신저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suchoi@khu.ac.kr)

본 연구는 고객기업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감사계약 체결 시 감사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다. 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수임할 때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나 감사범위의 제한 등과 같이 감사의견에 변형을 가져오는 위험이 아닐지라도 고객기업의 재무적 취약성, 파산가능성, 경영진과의 마찰이나 외부투자자의 재무제표 의존도 등에 따라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감사수입위험(Engagement risk)은 직접적으로 재무제표 감사 실패와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향후 감사인이 잠재적 소송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기업에 대해 가지는 위험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관련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이러한 감사수입위험과 결부되어 감사보수에 체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우선, 재무제표의 높은 비교가능성은 투자자의 회계정보 획득비용을 줄이므로 비교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기업이라면 투자자가 감사인의 의견에만 의존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이다. 또한 타 기업과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주가가 일시에 폭락하는 경향이 사전에 예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만약 감사인이 이러한 기업을 감사한다면 피소 가능성, 감사실패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감사위험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꿔 말하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평가하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며, 이는 감사보수 결정에 반영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조사하여 발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낮을수록 해당 기업의 감사보수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비교가능성이 1표준편차 감소할 때 감사보수는 5.8~6.7% 증가하였다. 이는 감사보수 결정과정에서 고객기업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고객기업의 규모, 복잡성, 손실여부 등 여러 고유 특성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은 감사보수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감사보수를 감사시간과 시간당보수로 구분하여 각각 비교가능성과 조사한 결과, 낮은 비교가능성은 감사시간과 시간당보수를 모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긴 계속감사기간과 Big 4 감사인과의 계약 여부는 낮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 간 양의 관계를 증분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고객기업에 대한 핵심 감사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감사인들은 낮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감사위험으로 인지하여 높은 감사보수를 수임하는 반면, 오랜 감사기간 동안 고객기업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 가능한 고품질 감사인은 낮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으로 인한 감사위험을 흡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결과는 이들 감사인이 상대적으로 비교가능성이 높은 재무제표가 보고되도록 유도하는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추가분석으로, 내생성 완화를 위해 성향점수로 매칭된 표본을 이용한 결과와 비교가능성의 다른 대응치를 이용한 결과 등에서도 모두 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주제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감사보수, 감사시간, 계속감사기간, Big 4 감사인

## 1. 서론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개념체계상의 질적 특성이다(IASB 2010; 회계기준위원회 2011). 이러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 투자자 및 채권자들의 보고기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경영진의 전망과 전략을 식별하도록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기업의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도록 한다. 그러나 비교가능성을 정량화하여 측정하지 얼마 되지 않아 그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축적되는 과정에 있으며, 특히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경제적 비용의 감소와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선행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고객기업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감사계약 체결 시 감사보수 결정에 작용하는지 조사한다. 또한 만약 낮은 비교가능성이 높은 감사보수의 형성을 유도한다면 계속감사기간이나 Big 4 감사인 등의 감사인 특성이 이 둘의 관계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수임할 때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나 감사범위의 제한 등과 같이 감사의견에 변형을 가져오는 위험이 아닐지라도 고객기업의 재무적 취약성, 파산가능성, 경영진과의 마찰이나 외부투자자의 재무제표 의존도 등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감사수임위험(Engagement risk)은 재무제표 감사 실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감사인이 향후 잠재적 소송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고객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이러한 감사

수임위험과 결부되어 감사보수에 체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장 직접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동종업계의 타기업들과 다른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감사인으로 하여금 재무제표의 적절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에 이르기까지의 평가과정에 추가적인 노력의 투입을 야기한다.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의 허용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저하를 의미한다(IASB 2010; 회계기준위원회 2011). 또한 감사인의 추가적 노력 투입은 감사보수의 할증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저하가 감사보수의 할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비교가능한 재무제표는 감사인의 이러한 입증감사시간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기은선과 권수영 2014; Chen et al. 2017). 감사보수를 결정하는 두 요소를 감사투입량과 단위당 가격으로 볼 때(Simunic 1980), 이러한 감사투입량(감사시간)의 감소는 감사보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단위당 가격의 측면에서도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낮은 품질의 회계정보와 감사보수 프리미엄 사이에 양의 관계를 보고한다(Choi et al. 2010).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은 회계정보품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오광욱 2015; Sohn 2016), 비교가능성이 낮은 재무제표 정보는 감사위험의 증가를 야기한다.

이와 같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은 고객기업의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의 정보이용비용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De Franco et al. 2011)에서 감사인이 감사계약 체결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만약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기업이라면 회계정보의 획득비용이 낮은 투자자가 감사인의 의견에만 의존할 가능성도 현저히 낮을 것이며,

이는 감사수임위험을 줄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감사보수와 비교가능성의 체계적 관계를 예상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타 기업과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주가가 일시에 폭락하는 경향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Kim et al. 2016). 이러한 기업의 성과 하락 및 가치 하락은 감사인의 감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시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Carcello and Palmrose 1994). 바꿔 말하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평가하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며 이는 감사보수에 반영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의 음의 관계(즉, 낮은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 간 양의 관계)가 상이한 상황에 따라 강화 혹은 완화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우선, 계속감사기간의 효과를 제시 및 분석한다. 선행연구는 감사인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의 효과를 두 가지로 제시한다. 하나는 감사인과 고객기업 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감사인의 독립성이 낮아질 가능성이며(Carey and Simnett 2006), 다른 하나는 고객기업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 계속감사기간의 확대가 감사인의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며(Johnson et al. 2002; Gul et al. 2009). 이와 같이 양립하는 주장을 본 연구에 적용하면 양방향의 예측이 가능하다. 만약, 전자(독립성 훼손)를 지지한다면 계속감사기간이 길수록 낮은 비교가능성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감사보수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후자(전문성 강화)를 지지한다면 계속감사기간이 길수록 낮은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 간 양의 관계가 증분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실증분석이 필요한 연구주제이다.

마지막 가설은 Big 4 감사인의 효과를 조사한다. 선행연구 중 다수는 감사인 규모가 감사품질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DeAngelo 1981; Becker et al. 1998 등). 이러한 논의를 본 연구에 적용할 경우 낮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보이는 고객기업에 대해서 Big 4 감사인이 중소형감사인에 비해 더욱 엄격한 품질관리를 시도한다면 감사보수를 높게 청구할 것이다. 반면, Big 4 감사인은 동종업계에서 다른 고객기업의 감사를 통해 축적한 지식을 해당 기업의 감사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감사법인 내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한 지식의 전이로 피감사기업의 낮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통제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 보수할증이 증분적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의 상장기업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낮을수록 해당 기업의 감사보수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감사보수 결정과정에서 고객기업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비교가능성이 1 표준편차 감소할 때 감사보수는 5.8~6.7%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객기업의 규모, 복잡성, 손실여부 등 여러 고유의 특성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은 감사보수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계속감사기간과 Big 4 감사인과 계약 여부는 낮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 간 양의 관계를 증분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감사인이 동종업계와 특정 고객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에서는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낮을 때 이를 감사보수에 온전히 반영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즉, 감사인의 두 특성이 비교가능성의 효과를 상쇄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결국 비교가능성이 낮은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고객

기업에 대한 감사경험이 적은 감사인들이 이러한 감사위험에 대해 감사보수를 더 많이 수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분석으로, 감사보수를 Simunic(1980)의 접근방식에 따라 감사시간과 시간당보수로 구분하여 각각을 비교가능성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낮은 비교가능성은 감사시간과 시간당보수를 모두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내생성 완화를 위해 성향점으로 매칭된 표본을 이용한 결과와 비교가능성의 다른 대용치를 이용한 결과 등에서도 모두 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를 당기-당기 및 전기-당기 시점으로 분석하여도 모두 질적으로 유사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진다. 우선, 감사보수 결정요인들을 조사한 선행연구에 추가적인 실증 결과를 제시한다. 고객기업의 영업환경, 지배구조, 재무구조, 소송위험, 투자자와의 관계 및 경영진과의 관계 등이 감사보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흐름에 고객기업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중요한 감사보수 결정요인의 하나라는 기초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감사인의 전문성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선행연구는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지는 효과를 감사인 독립성 훼손의 측면과 감사인 전문성 향상의 측면에서 상반되게 바라보고 있다. 계속감사기간이 길수록 낮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효과가 완화된다는 것은 감사인 전문성으로 감사위험을 대체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또한 선행연구는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한 대형감사법인이 상대적으로 내부의 지식전이가 활발히 이루어져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비교적 균일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며, 본 연구의 발견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외부 정보이용자들에게도

도움을 준다. 대체로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제표 정보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 간주한다. 비교가능성이 낮은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 역시 이를 감사보수에 반영하고 있다는 실증적 발견은 투자자들이 정보획득 비용이 높은 회계정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II. 선행연구와 가설 설정

### 2.1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관한 선행연구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De Franco et al.(2011)에 의해 측정치가 소개된 이후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높아지는 조건에 대한 연구(Yip and Young 2012; Francis et al. 2014; Dhole et al. 2015)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증가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업의 의사결정 및 성과에 대한 연구(Kim et al. 2016; Sohn 2016; Chen et al. 2018; Imhof et al. 2017)로 구분된다.

우선, De Franco et al.(2011)은 경제적인 사건을 대응하는 주가수익률이 두 상이한 기업의 회계시스템에서 동일한 순이익으로 전환되는 정도를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척도로 본다. 이를 통해 개발한 비교가능성 측정치를 이용한 결과, 높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은 해당 기업에 대한 예측치를 발표하는 재무분석가 수 및 예측정확성 증가와 양의 관련이 있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여러 조건 및 상황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회계기준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도 있다. 예를 들

어, Yip and Young(2012)은 17개의 유럽 국가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IFRS 도입 이후 이들의 회계 정보 비교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발견하였다. Francis et al.(2014)은 동일한 Big 4 법인에게 감사를 받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상이한 Big 4 감사인에게서 감사를 받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비해 비교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Dhole et al.(2015)은 EDGAR 시스템에 10-K, 10-Q 정보를 XBRL로 파일링하는 도입 초년도인 2009년에 오히려 비교가능성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계정의 비교가능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상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에서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증가로 야기되는 기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 Kim et al.(2016)은 비교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주가가 급락할 위험(Crash risk)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Sohn(2016)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증가가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은 줄이고 실물활동이익조정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동 연구는 비교가능성의 증가를 통해 발생액에 대한 탐지가 용이해져, 상대적으로 실물을 통한 이익조정으로 경영자들의 이익조정 성향이 움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Chen et al.(2018)은 인수합병시 피인수기업의 재무제표가 동일한 업종에 속한 다른 기업과 비교가능할 때 합병가능성이 높으며 합병 후 성과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Imhof et al.(2017)은 비교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회계정보 품질을 통제된 후에도 자본비용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경쟁정도가 낮거나 정보비대칭이 심한 시장의 투자자들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도 여러 측면에서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윤창 등(2015)은 재무제표가 비교가능할수록 경영자의 이익예측 정확도

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광영민과 백정환(2015)은 유럽국가를 대응기업으로 이용하였을 때 국내기업들의 재무정보 비교가능성이 IFRS 도입 이후 증가하였으며, 대륙법 국가를 대응국가로 이용하였을 때 역시 우리나라가 기업들의 비교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최영순 등(2015)도 유사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동 연구는 최대주주지분율이 낮거나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경우 IFRS 도입 이후 비교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동현 등(2016)은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업의 이익 비교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음을 발견하였으며, 종업원 급여수준 및 이익과 손실 보고기업에 있어서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이익의 비교가능성이 각 상황별로 적절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승욱(2016)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증가가 기업의 과대 및 과소 투자를 모두 줄여 효율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문해원 등(2016)은 기업의 수명주기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간 관계를 조사하였다. 동 연구는 동일한 수명주기에 속한 기업 간에 비교가능성이 높으며, 서로 다른 수명주기에 속하였다가 동일한 수명주기로 변화하는 기업들 간의 비교가능성도 유의하게 증가함을 제시한다.

## 2.2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본 연구는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감사보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조사한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이미 제시하고 있는 감사보수의 결정요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본 절에서는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이들 연구는 감사인 규모, 수입계약의 보수 할인 정도 및 고객기업의 복잡성으로 인한 감사위험을 제시하며,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들을 통제한 후 각 연구들이 살펴보고자하는 주요 관심변수와 감사보수의 관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체로 많은 연구들은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감사보수가 증가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Simunic(1980)의 감사보수 결정모형에서 시작한다. 동 연구는 감사투입량과 투입단위당 감사보수의 결합으로 감사보수가 결정되며 Big 8 감사인과 non-big 8 감사인 사이에 감사보수의 체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기업의 규모, 연결 상의 종속회사 수, 해외자산,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손실발생여부 등을 통제하였다. 분석결과 감사인 규모에 따른 감사보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확장하여 Francis(1984)는 호주 감사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Big 8 감사인이 non-big 8 감사인에 비해 높은 감사보수를 수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연구들은 대체로 감사인 규모와 감사보수 간의 양의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감사보수가 할인되는 요인을 발견한 연구들도 있다. 대체로 초도감사 시에는 감사보수 할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ttore and Greenberg(1990)은 초도감사 시 평균 25%의 감사보수 할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Crawell and Francis(1999)는 호주 감사시장을 이용한 결과에서, non-Big 8에서 Big 8으로 감사인 상향 변경 시에만 감사보수 할인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초도감사 시에 감사보수 할인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실증결과이나 미국 감사시장을 대상으로 한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경향이 Post-SOX 기간에서

역전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Huang et al.(2009)는 Pre-SOX 기간에 24%의 초도감사보수 할인이 발생하지만 Post-SOX 기간에는 오히려 16%의 보수 할증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는 감사위험과 감사보수 관련 선행연구이다. 고객기업의 감사위험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조사한 연구로는 Bell et al.(2001), Hogan and Wilkins(2008) 등이 있다. Bell et al.(2001)은 감사파트너에 대한 설문을 통해 감사인이 인지하는 영업위험을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위험의 증가가 감사보수에 반영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sup>1)</sup> Hogan and Wilkins(2008)는 내부통제 상의 취약점 보고 고객기업에 대해 35%의 감사보수 할증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취약점의 심각성에 따라 보수할증 정도가 차별적이었다. 이상의 실증연구들 이외에 몇몇 실험 연구들은 감사인이 직면하는 고객기업의 여러 감사위험 요인들을 감사위험 평가에 반영하는지를 조사하였다(Mock and Wright 1999). 이들 연구의 특징은 대체로 적은 수의 표본기업만을 이용하여 연구의 통계적·기술적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Mock and Wright(1999)는 랜덤하게 선택한 74개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할 결과 고객기업의 감사위험 수준 및 위험수준의 변화에 따라 감사평가 절차가 제한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감사보수가 감사인 및 고객기업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음을 발견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예외적으로 다음의 두 연구는 본 연구의 조사와 밀접한 관련

1) Bell et al.(2001)은 감사위험에 따른 감사보수의 증가가 감사시간의 증가에 의해 유도됨을 발견하였다. 즉, 시간당 감사보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있다. 우선, Chen et al.(2017)의 연구는 해외 감사시장 자료를 이용한 조사에서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증가가 감사보수와 감사시차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또한 국내연구로 기은선과 권수영(2014)은 이익의 비교가능성 증가가 감사시간 및 재량적발생액을 줄이며, 이러한 효과는 비산업전문 감사인에서 더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두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우선, 본 연구는 국내 감사시장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의 관계를 실증한다는 점에서 Chen et al.(2017)과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동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감사시간과 시간당 보수를 이용하여 비교가능성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한다. 후술하겠지만, 본 연구는 시간당보수와 비교가능성 간에 유의한 결과를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기은선과 권수영(2014)의 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감사인 규모와 계속감사기간이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의 관계에 미치는 증분적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도 동 연구와 차이가 있다.

### 2.3 가설 설정

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수임할 때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과 같이 감사의견에 변형을 가져오는 수준의 위험이 아닐지라도 위험이 내재된 고객기업의 감사업무 수임한 것만으로도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감사수임위험(Engagement risk)은 고객기업의 재무적 취약성, 파산가능성, 경영진과의 마찰이나 외부투자자의 재무제표 의존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즉, 직접적으로 재무제표 감사 실패와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향후 잠재적 소송 등에 감사인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고객기업에 대해서는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은 고객기업의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의 정보이용비용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에서 감사인이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동종업계의 타 기업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재무제표 정보는 투자자들의 정보획득에 수반되는 비용을 줄여준다(De Franco et al. 2011).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회계정보를 비교분석하여 명확히 판단할 가능성을 높인다. 선행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회계정보를 전달하는 기업의 주가폭락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한다(Kim et al. 2016).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투자자가 감사인의 의견에만 의존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 본 연구는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이 감사보수의 두 요소 즉, 감사투입량과 단위당 가격에 비교가능성이 모두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본다(Simunic 1980).<sup>2)</sup> 우선, 감사투입량과 관련하여, 감사인은 피감사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반영한 최종 결론을 얻기 위해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한다. 이는 감사과정의 핵심이며 감사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양과 질의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감사 투입량의 증가로 이어진다. 선행연구는 비교가능한 재무제표가 감사인의 투입시간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기은선과 권수영 2014; Chen

2) Simunic(1980)은 감사보수가 감사투입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산출된다고 보았다. 동 연구는 피감사회사의 자산규모, 종속회사의 수, 영업 복잡성과 해외자산의 규모 등이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인 것으로 보았다.

et al. 2017). 즉, 피감사기업이 동종산업에 속한 기업들과 경제적 사건을 이익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유사하다면, 감사인은 입증감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재무제표의 오류를 탐지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이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기업의 감사인이 수입하는 감사보수가 감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단위당 가격의 측면에서도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단위당 가격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소수의 연구는 이를 감사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본다(Bell et al. 2001; Bell et al. 2008; Hogan and Wilkins 2008; Bae et al. 2016).<sup>3)</sup> 감사인이 인지하는 피감사기업의 영업위험 증가는 단위당 감사보수 즉, 보수 프리미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는 낮은 품질의 회계정보와 감사보수 할증의 관계를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며(e.g., Choi et al. 2010)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역시 저품질의 회계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오광욱 2015; Sohn 2016). 이는 비교가능성이 낮은 재무제표 정보는 감사위험의 증가를 야기하는 동시에 감사인이 수입하는 보수 프리미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객기업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낮을수록 감사보수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다음과 같은 첫 번째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고객기업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낮을수록 감사보수는 높아진다.

전술한 첫 번째 가설에서는 고객기업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감사위험의 하나로 보고 감사인이 이를 감사보수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어지는 가설들은 이러한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의 음의 관계를 강화 혹은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탐색한다.

우선, 계속감사기간이 이 둘의 관계에 체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선행연구는 감사인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의 효과를 두 가지로 제시한다. 하나는 감사인과 고객기업간 유착관계의 형성으로 인해 감사인 독립성이 감소할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고객기업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 계속감사기간의 증가가 감사인 전문성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우선, 감사인 독립성 훼손을 주장하는 연구는 계속감사기간의 증가로 인해 감사품질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Carey and Simnett(2006)은 감사파트너 계속감사기간의 증가가 계속기업 의문표명이나 이익의 벤치마크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 이를 감사품질 훼손의 증거로 주장하였다.<sup>4)</sup>

반면, 다른 연구들은 계속감사기간이 감사인의 전문성 증가와 관련이 있어 감사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계속감사기간이 짧은 시점에서는 감사인의 고객기업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로우볼링으로 인해 저가수입된 감사보수 등으로 인해 감사인이 전문성이 낮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Johnson et al.(2002)은 상대적으로 짧은 계속감사기간에는 감사품질이 낮았으나 9년 이상 긴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 저하 사이에는 관련성을 찾지 못하였다. Ghosh and Moon(2005)은 계속감사기간의 증가가 이익반응계수와

3) 다만, Bell et al. (2001), (2008)의 조사는 제한된 감사법인과 표본으로 인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4) 다만, Carey and Simnett(2006)의 연구결과는 비정상발생액을 이용한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양의 관계를 가져, 투자자들이 인지하는 감사품질은 계속감사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Gul et al.(2009)은 계속감사기간이 짧으면 고객기업에 대해 축적한 감사인의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감사품질이 낮으며 이를 산업전문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선행연구는 계속감사기간이 길수록 고객기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전이로 인해 감사인의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것과 감사인 독립성의 훼손을 모두 보고한다. 이로 인한 효과는 감사품질로 나타날 것이며, 감사품질이 감사보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Choi et al. 2010; Hribar et al. 2014)에서 계속감사기간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감사인 전문성 논리를 따른다면, 상대적으로 짧은 감사기간에는 낮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높은 감사보수로 보상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면 낮은 비교가능성은 이미 수집된 감사증거로서 감사인에게 위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즉,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의 음의 관계는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더욱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sup>5)</sup> 반면, 감사인 독립성 훼손의 주장을 따른다면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인-고객기업 유착으로 인해 가설 1의 관계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즉, 낮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대해 감사인이 이를 높은 감사보수를 수임하는 것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Choi et al. 2010).<sup>6)</sup> 따라서 이는 실증분석이 필요한 연구주제이므로 두 번

재 가설(2a)을 다음과 같이 방향성을 두지 않고 설정한다.

가설 2a: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의 음의 관계는 계속감사기간의 영향을 받는다.

다음으로, 감사인 관련 선행연구의 다수는 감사인 규모가 감사품질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DeAngelo(1981)은 많은 수의 고객기업과 계약된 대형감사인은 중소형감사인에 비해 감사실패로 인해 잃게 되는 평판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고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이를 실증분석한 논문들은 대체로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감사품질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대표적으로 Becker et al.(1998)은 Big 6 감사인이 낮은 재무적발생액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Big 8 감사인이 non-big 8 감사인에 비해 높은 이익반응계수를 보여, 투자자들에 의해 “인지된” 감사품질이 감사인 규모에 비례한다는 연구도 있다(Teoh and Wong 1993). 이러한 연구들의 주장에는 감사인 규모가 클수록 감사법인 내부적으로 지식의 전이가 이루어지며 또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논리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상반된 예측이 가능하다. 우선, Big 4 감사인은 non-Big 4 감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가능성이 낮은 피감사기업을 더 높은 감사위험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가설 1의 관계는 Big 4 감

5) 그러나 감사인의 축적된 전문성이 고객기업의 낮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감사위험으로 인지하고 이를 감사보수에 반영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즉, 사전적으로는 계속감사기간의 효과를 예측하지 쉽지 않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6) Choi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높은 비정상감사보수의 수임을 낮은 회계정보 품질에 대한 감사인과 피감사기업 간 타협(compromise)의 증거로 해석한다.

사인의 피감사기업에서 더 강화될 것이다. 반면, Big 4 감사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오랜 감사경험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지식의 전이가 이루어져 피감사기업의 낮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통제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가설 1의 관계는 Big 4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서 더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논리는 대형감사인들이 동종 업계에서 다른 고객기업의 감사를 통해 축적된 지식을 해당 기업의 감사에도 적용할 것이라는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2b)을 방향성 없이 설정한다.

가설 2b: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의 음의 관계는 Big 4 감사인의 영향을 받는다.

### III. 연구 설계

#### 3.1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측정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대응치는 De Franco et al.(2011)에서 사용한 측정치를 원용한다. 동 연구는 주가수익률을 경제적 사건의 순효과에 대한 대응치로 보았다. 즉, 기업  $i$ 의 경제적 사건을 주가수익률로 보고 이를 기업의 이익과 회귀분석하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산출하였다.

$$Earnings_{it} = \alpha_i + \beta_i Return_{it} \quad (1)$$

위의 식(1)에서  $i$ 는 기업을,  $t$ 는 분기를 의미한다. 즉, 기업  $i$ 의 과거 16분기 주가수익률( $Return$ )과 이익( $Earnings$ )을 회귀분석하여 각 계수값을 추정

한다( $\hat{\alpha}_i$ 와  $\hat{\beta}_i$ ). 이 두 추정값은 기업  $i$ 의 경제적 사건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함수이다. 이렇게 추정한 계수와 기업  $i$ 의 당기 주가수익률을 결합하면 기업  $i$ 에 대한 당기 예상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동일 산업에 속한 다른 기업  $j$ 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하게 과거 16분기 주가수익률과 이익을 회귀분석하여 그 계수값을 추정할 수 있다( $\hat{\alpha}_j$ 와  $\hat{\beta}_j$ ). 이 계수값은 기업  $j$ 의 회계시스템을 대용할 것이다. 만약, 기업  $j$ 에 기업  $i$ 와 동일한 경제적 사건  $Return_{jt}$ 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기업  $j$ 의 회계시스템으로 산출한 기대이익은 아래와 같을 것이다.

$$E(Earnings_{jit}) = \hat{\alpha}_j + \hat{\beta}_j Return_{it} \quad (2)$$

재무제표가 비교가능하다는 것은 동일한 경제적 사건  $Return_{jt}$ 를 두 기업  $i$ 와  $j$ 의 회계시스템이 유사한 회계이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식(3)에서  $Low\_Cp_{jit}$ 이 두 기업간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측정치이다. 이때, De Franco et al.(2011)의 원 측정치에서는 두 예상이익 차이의 절대값에 -1을 곱해 그 값이 증가할수록 비교가능함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가설 1에서는 비교가능성이 낮을수록 감사보수가 높아질 가능성을 측정하므로 -1을 곱하지 않는다. 즉, 아래의  $Low\_Cp_{jit}$ 는 그 값이 클수록 낮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대용한다.

$$Low\_Cp_{jit} = \frac{1}{16} \times \sum_{t=15}^t | E(Earnings_{iit}) - E(Earnings_{jit}) | \quad (3)$$

De Franco et al.(2011)은 기업-연도별 측정치

를 산출하기 위해 식 (3)의  $Low\_Cp_{ijt}$ 가 동일 산업-연도에서 가장 높은 상위 4개의 평균을 이용한다. 본 연구 역시 이와 같은 방법론을 원용한다.<sup>7)</sup> 이에 따라 산출된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변수를  $Low\_Cp1$ 으로 이용한다.

De Franco et al.(2011)은 주가가 재무제표 이익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고 전기주가수익률(Lagged Return)을 모형에 포함하여 비교가능성 측정치를 산출하기도 하였다. 즉, 위의 식 (1), (2)의 독립변수에 전기주가수익률을 추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가능성 측정치를 산출한다. 본 연구도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변수를  $Low\_Cp2$ 로 설정하고 분석에 이용한다.

### 3.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감사보수에 체계적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다. 선행연구는 직전연도 고객기업의 영업복잡성, 감사위험 및 감사환경이 당기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직전연도말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값을 독립변수로 이용한다. 본 연구도 같은 방법을 따른다.<sup>8)</sup> 이는 감사보수가 당기 감사 전에 미리 결정되는 실무 관행과도 일관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아래의 식 (4)와 같다.

$$LnFee_{i,t} = \beta_0 + \beta_1 Low\_Cp_{i,t-1} + \beta_2 Size_{i,t-1} + \beta_3 LEV_{i,t-1} + \beta_4 Tangibility_{i,t-1}$$

$$+ \beta_5 CURR_{i,t-1} + \beta_6 ATO_{i,t-1} + \beta_7 INVREC_{i,t-1} + \beta_8 Loss_{i,t} + \beta_9 LnAge_{i,t} + \beta_{10} Large_{i,t-1} + \beta_{11} Big_{i,t} + \beta_{12} Tenure_{i,t} + \beta_{13} Market_{i,t} + Year + Industry + \gamma_{i,t} \quad (4)$$

여기에서, i는 기업, t는 연도를 의미한다.

$LnFee$  = 감사보수의 자연로그값;

$Low\_Cp$  =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측정치, 아래의 두 측정치를 이용한다;

$Low\_Cp1$  = 식 (1)-(3)에 의해 산출된 비교가능성 측정치;

$Low\_Cp2$  = 식 (1)-(3)에 전기주가수익률을 포함하여 산출된 비교가능성 측정치;

$Size$  = 기업규모,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LEV$  = 부채비율,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값;

$Tangibility$  = 유형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눈값

$CURR$  = 유동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눈값;

$ATO$  =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값;

$INVREC$  =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눈값;

$Loss$  = 손실을 보고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LnAge$  = 기업 설립일부터 현재까지의 연수의 자연로그값;

$Large$  =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

$Big$  = 대형감사인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Tenure$  = 계속감사기간;

$Market$  = 코스닥 상장사이면 1, 유가증권 상장사이면 0인 더미변수;

$Year$  = 연도고정효과;

$Industry$  = 산업고정효과.

7) De Franco et al.(2011)은 동일 산업-연도의 중위수값을 이용한 결과를 추가로 보여주었다. 본 연구도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위해 중위수값으로 산출한 변수를 이용한 결과를 추가분석에 제시한다.

8) 다만,  $Loss$ ,  $Market$ 과 같은 더미변수와 기업의 설립이후 존속기간( $LnAge$ ) 및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Tenure$ ,  $Big$ 은 당기 값을 이용한다.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위해 모든 변수를 당기값을 이용한 분석결과 역시 추가분석으로 제시한다.

위의 모형에서 관심변수는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다. 대용치로는  $Low\_Cp1$ 과  $Low\_Cp2$ 를 이용하며 이는 앞에서 소개한 추정식에서 산출된 값이다. 본 연구의 가설 1이 성립한다면  $Low\_Cp$ 의 계수값인  $\beta_1$ 이 양의 방향으로 유의할 것이다. 즉, 낮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은 높은 감사보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모형에 포함된 나머지 변수들은 통제변수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De Franco et al. 2011; Francis et al. 2014 등). 우선, 기업의 규모( $SIZE$ )는 직접 관측이 불가능한 기업 고유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모형에 포함한다. 또한 부채비율( $LEV$ )은 재무건정성이 비교가능성에 미칠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포함한다. 총자산 중 유형자산의 비중( $Tangibility$ )은 자산의 복잡성을 대용한다.  $CURR$ 은 유동성을 대용하며,  $ATO$ 는 자산의 효율적 사용을,  $INVREC$ 는 총자산 중 매출채권 및 채고 자산의 비중으로 기업 영업활동의 복잡성을 대용한다. 손실( $Loss$ )은 향후 소송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제약조건이므로 감사보수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연혁( $LogAge$ )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방식 및 기업의 수명주기를 통제하기 위해 해당 변수를 포함한다.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특성이 재무제표 작성에 주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 $Large$ )을 포함한다. 또한 감사인 규모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Francis et al. 2014)에 근거해 대형감사인 더미( $Big$ )를 포함하였다. 이는 가설 2b를 위한 상호작용변수로도 활용된다. 마찬가지로 가설 2a를 검증하기 위한 변

수로 계속감사기간( $Tenure$ )을 모형에 포함한다. 본 연구의 표본기업은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사를 모두 포함하는데 이 두 시장은 소속 기업의 특성이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코스닥 여부( $Market$ )를 통제한다. 마지막으로 연도 및 산업더미( $Year, Industry$ )를 포함하여 이들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2a, 2b)는 다음의 모형을 통해 검증된다.

$$\begin{aligned} LnFee_{i,t} = & \beta_0 + \beta_1 Low\_Cp_{i,t-1} \\ & + \beta_2 Tenure_{i,t}(Big_{i,t}) * Low\_Cp_{i,t-1} \\ & + \beta_3 Tenure_{i,t}(Big_{i,t}) + Controls \\ & + Year + Industry + \gamma_{i,t} \quad (5) \end{aligned}$$

위의 모형 (5)에서  $\beta_1$ 은 계속감사기간이 짧거나 혹은 non-Big 4 감사인과 계약한 고객기업인 경우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의 관계를 나타낸다. 상호작용변수인  $\beta_2$ 는 계속감사기간이 짧은 표본(non-Big 4 표본)에 비해 긴 표본(Big 4 표본)의 증분적 효과를 보여준다. 만약 계수값이 양(음)으로 유의하면, 가설 1의 관계가 계속감사기간이 길거나 혹은 Big 4 감사인과 계약한 고객기업인 경우 증분적으로 강화(완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타 통제변수는 모형 (4)와 같다.<sup>9)</sup>

### 3.3 표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연도를 표본으로 한다.

9)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변수간 합을 F-test를 통해 조사한다. 우선,  $(\beta_1 + \beta_2)$ 는 계속감사기간이 길거나 혹은 Big 4 감사인과 계약한 고객기업( $Tenure=1$  혹은  $Big=1$ ) 하에서 비교가능성 감소에 따른 감사보수 변화를 잡아낸다. 또한  $(\beta_2 + \beta_3)$ 는 비교가능성이 낮은 표본( $Low\_Cp=1$ ) 하에서 계속감사기간이 짧은 표본 대비 긴 표본 혹은 non-Big 4 대비 Big 4 감사인의 효과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두 계수값의 합이 0과 유의하게 다른지를 검증하여 조사한다.

- (1)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
- (2) IFRS 도입 이후연도부터 2016년까지의 상장기업-연도
- (3) 비금융업
- (4) 12월말 결산기업

본 연구는 기업의 주가자료를 이용하므로 유가증권과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을 표본으로 이용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으므로(Yip and Young 2012; 광영민과 백정환 2015), 표본기간은 2011년 이후로 한정한다. 또한 재무제표 항목의 일관성을 위해 비금융업 및 12월말 결산법인만을 표본으로 이용한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표본 기업 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011년에는 802개의 기업이 포함되며 연도별로 수가 점차 증가하여 2016년에는 1,135개의 기업을 활용한다. 분석에 이용되는 기업-연도의 총 수는 5,822개이다.

#### IV. 실증분석 결과

##### 4.1 변수의 기술통계

다음으로 <표 2>에는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피어슨 상관관계를 제시한다. 패널 A에는 분석에 이용되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인 감사보수의 자연로그값 평균은 11.31이다. 이를 환산하면 약 81,634(천원)이다. 상위 99%에 해당하는 값은 13.66이며 이의 환산값은 855,978(천원)으로 고객기업간 감사보수의 편차가 상당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측정치는 *Low\_Cp1*, *Low\_Cp2*로 평균값은 두 변수 모두 0.01이다. 본 연구는 De Franco et al.(2011)과는 다르게 절대값에 (-1)을 곱하지 않아 비교가능성 측정치가 양의 값을 보인다. 기업규모의 평균은 19.07, 평균 부채비율은 42%, 유형자산비율은 28%이다. 기타 다른 변수들을 살펴보면, 손실을 보고한 기업은 29%이며, 기업연령은 3.43으로 이 자연로그값을 자연수로 환산하면 약 31년이다.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은 40%, 대형감사인과 계약한 비율은 52%이다. 계속감사기간 변수의 평균은 4.96년이다.

<표 2>의 패널 B는 변수간 상관관계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변수와 감사보수는 상관계수 -0.08로 1% 이상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가진다. 다만 이는 고객기업의 여러 특성(특히 감사위험 및 복잡성과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하기 이전의 단순 상관관계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기타 기업규모, 부채비율, 기업연령, Big 4 감사인 및 계속감사기간은 감사보수와 양의 관계가 있다. 반면, 유동자산비율, 매출채권과 재고자산비율, 대주주 지분율 및 코스닥 상장여부는 감사보수와 음의 관계가 있다.

<Table1> Yearly distribution

| Year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Total |
|------|------|------|------|-------|-------|-------|-------|
| Obs. | 802  | 883  | 937  | 1,001 | 1,064 | 1,135 | 5,822 |

〈Table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matrix

## [Panel A] Descriptive Statistics

| Variables          | Mean  | Std. | P1    | P25   | Median | P75   | P99   |
|--------------------|-------|------|-------|-------|--------|-------|-------|
| <i>LnFee</i>       | 11.31 | 0.68 | 10.04 | 10.88 | 11.18  | 11.61 | 13.66 |
| <i>Low_Cp1</i>     | 0.01  | 0.01 | 0.00  | 0.00  | 0.01   | 0.01  | 0.07  |
| <i>Low_Cp2</i>     | 0.01  | 0.01 | 0.00  | 0.00  | 0.01   | 0.01  | 0.08  |
| <i>Size</i>        | 19.07 | 1.41 | 16.61 | 18.14 | 18.79  | 19.77 | 23.89 |
| <i>LEV</i>         | 0.42  | 0.20 | 0.04  | 0.25  | 0.42   | 0.56  | 0.91  |
| <i>Tangibility</i> | 0.28  | 0.19 | 0.00  | 0.13  | 0.27   | 0.41  | 0.75  |
| <i>CURR</i>        | 0.45  | 0.18 | 0.06  | 0.31  | 0.44   | 0.57  | 0.86  |
| <i>ATO</i>         | 0.92  | 0.59 | 0.05  | 0.55  | 0.82   | 1.16  | 3.08  |
| <i>INVREC</i>      | 0.28  | 0.16 | 0.00  | 0.16  | 0.26   | 0.38  | 0.73  |
| <i>Loss</i>        | 0.29  | 0.45 | 0.00  | 0.00  | 0.00   | 1.00  | 1.00  |
| <i>LnAge</i>       | 3.43  | 0.47 | 2.30  | 3.04  | 3.50   | 3.78  | 4.30  |
| <i>Large</i>       | 0.40  | 0.17 | 0.07  | 0.28  | 0.40   | 0.52  | 0.82  |
| <i>Big</i>         | 0.52  | 0.50 | 0.00  | 0.00  | 1.00   | 1.00  | 1.00  |
| <i>Tenure</i>      | 4.96  | 2.95 | 1.00  | 2.00  | 5.00   | 7.00  | 12.00 |
| <i>Market</i>      | 0.54  | 0.50 | 0.00  | 0.00  | 1.00   | 1.00  | 1.00  |

## [Panel B] Correlation Matrix (Pearson)

| Variables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 (1) <i>LnFee</i>       | 1.00         |              |              |              |              |              |              |              |              |              |              |              |              |              |      |
| (2) <i>Low_Cp1</i>     | <b>-0.08</b> | 1.00         |              |              |              |              |              |              |              |              |              |              |              |              |      |
| (3) <i>Low_Cp2</i>     | <b>-0.08</b> | <b>0.98</b>  | 1.00         |              |              |              |              |              |              |              |              |              |              |              |      |
| (4) <i>Size</i>        | <b>0.78</b>  | <b>-0.26</b> | <b>-0.27</b> | 1.00         |              |              |              |              |              |              |              |              |              |              |      |
| (5) <i>LEV</i>         | <b>0.23</b>  | -0.02        | -0.01        | <b>0.17</b>  | 1.00         |              |              |              |              |              |              |              |              |              |      |
| (6) <i>Tangibility</i> | -0.01        | <b>-0.17</b> | <b>-0.17</b> | <b>0.12</b>  | <b>0.22</b>  | 1.00         |              |              |              |              |              |              |              |              |      |
| (7) <i>CURR</i>        | <b>-0.14</b> | <b>0.05</b>  | <b>0.05</b>  | <b>-0.21</b> | 0.01         | <b>-0.41</b> | 1.00         |              |              |              |              |              |              |              |      |
| (8) <i>ATO</i>         | 0.03         | <b>-0.06</b> | <b>-0.07</b> | 0.02         | <b>0.24</b>  | -0.02        | <b>0.40</b>  | 1.00         |              |              |              |              |              |              |      |
| (9) <i>INVREC</i>      | <b>-0.11</b> | <b>-0.10</b> | <b>-0.10</b> | <b>-0.13</b> | <b>0.27</b>  | <b>-0.06</b> | <b>0.60</b>  | <b>0.48</b>  | 1.00         |              |              |              |              |              |      |
| (10) <i>Loss</i>       | -0.02        | <b>0.19</b>  | <b>0.20</b>  | <b>-0.15</b> | <b>0.21</b>  | -0.02        | -0.03        | <b>-0.14</b> | 0.00         | 1.00         |              |              |              |              |      |
| (11) <i>LnAge</i>      | <b>0.16</b>  | <b>-0.21</b> | <b>-0.21</b> | <b>0.31</b>  | <b>0.05</b>  | <b>0.14</b>  | <b>-0.13</b> | 0.02         | <b>0.04</b>  | <b>-0.09</b> | 1.00         |              |              |              |      |
| (12) <i>Large</i>      | <b>-0.04</b> | <b>-0.20</b> | <b>-0.20</b> | <b>0.12</b>  | <b>-0.06</b> | <b>0.08</b>  | <b>-0.11</b> | <b>0.05</b>  | <b>-0.04</b> | <b>-0.21</b> | <b>0.17</b>  | 1.00         |              |              |      |
| (13) <i>Big</i>        | <b>0.45</b>  | <b>-0.12</b> | <b>-0.13</b> | <b>0.45</b>  | <b>0.06</b>  | 0.01         | <b>-0.06</b> | <b>0.06</b>  | <b>-0.06</b> | <b>-0.10</b> | <b>0.12</b>  | <b>0.13</b>  | 1.00         |              |      |
| (14) <i>Tenure</i>     | <b>0.06</b>  | <b>-0.11</b> | <b>-0.12</b> | <b>0.09</b>  | <b>-0.10</b> | -0.02        | -0.01        | 0.01         | -0.02        | <b>-0.07</b> | 0.02         | 0.03         | <b>0.12</b>  | 1.00         |      |
| (15) <i>Market</i>     | <b>-0.36</b> | <b>0.19</b>  | <b>0.20</b>  | <b>-0.52</b> | <b>-0.07</b> | <b>-0.12</b> | <b>0.16</b>  | -0.03        | 0.00         | <b>0.09</b>  | <b>-0.52</b> | <b>-0.13</b> | <b>-0.26</b> | <b>-0.04</b> | 1.00 |

Notes: 1) Bolds indicate significance more than 1% level.

4.2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의 음의 관계를 예측한다. 즉, 낮은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 사이의 양의 관계를 예상하며, 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한다. 표의 모형 (1)은 *Low\_Cp1*을 관심변수로 이용한 결과이다. 모형의 설명력은 약 71%이며, 5,822개의 기업-연도 관측치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표에서 *Low\_Cp1*의 계수값은 6.493으로 1%에서 유의하다( $t$ -값=12.09). 이는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낮

을수록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비교가능성이 1 표준편차 감소할 때 감사보수는 약 6.7%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감사보수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Low\_Cp2*를 이용한 모형 (2)에서도 발견된다. *Low\_Cp2*의 계수값은 5.619로 역시 1% 수준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다( $t$ -값=12.12). 이를 경제적인 효과로 환산하면 비교가능성이 1 표준편차 감소할 때 감사보수는 약 5.8% 증가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가설 1의 예측을 지지하고 있다.

<Table 3> The effect of low financial comparability on audit fees (Test of H1)

|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i>LnFee</i> |              |                             |              |
|----------------------|-----------------------------------|--------------|-----------------------------|--------------|
|                      | Model (1)<br><i>Low_Cp1</i>       |              | Model (2)<br><i>Low_Cp2</i> |              |
|                      | Coeff                             | t-stat       | Coeff                       | t-stat       |
| <i>Intercept</i>     | 4.015***                          | 32.45        | 4.024***                    | 32.59        |
| <b><i>Low_Cp</i></b> | <b>6.493***</b>                   | <b>12.09</b> | <b>5.619***</b>             | <b>12.12</b> |
| <i>Size</i>          | 0.380***                          | 77.52        | 0.381***                    | 77.52        |
| <i>Lev</i>           | 0.344***                          | 11.60        | 0.338***                    | 11.39        |
| <i>Tangibility</i>   | -0.332***                         | -9.64        | -0.328***                   | -9.52        |
| <i>Curr</i>          | -0.220***                         | -5.27        | -0.216***                   | -5.19        |
| <i>ATO</i>           | 0.007                             | 0.68         | 0.007                       | 0.67         |
| <i>INVREC</i>        | 0.085*                            | 1.82         | 0.085*                      | 1.82         |
| <i>Loss</i>          | 0.046***                          | 3.87         | 0.046***                    | 3.86         |
| <i>LnAge</i>         | -0.028**                          | -2.15        | -0.029**                    | -2.20        |
| <i>Largeshare</i>    | -0.369***                         | -11.48       | -0.369***                   | -11.51       |
| <i>Big</i>           | 0.190***                          | 16.74        | 0.191***                    | 16.79        |
| <i>Tenure</i>        | -0.004**                          | -2.08        | -0.004**                    | -2.10        |
| <i>Kosdaq</i>        | -0.001                            | -0.10        | -0.002                      | -0.13        |
| Year                 | Included                          |              | Included                    |              |
| Industry             | Included                          |              | Included                    |              |
| Adj R <sup>2</sup>   | 0.7087                            |              | 0.7088                      |              |
| Obs.                 | 5,822                             |              | 5,822                       |              |

Notes: 1) \*, \*\*, and \*\*\* denote the significance at 10%, 5%, and 1% level, respectively.

기타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기업규모(*Size*)가 크고, 부채비율(*Lev*)가 높으며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비중(*INVREC*)이 높은 기업의 감사보수가 높다. 또한 손실을 보고하였거나(*Loss*) Big 4 감사인과 계약(*Big*)한 고객기업의 감사보수가 역시 더 높다. 반면, 유형자산비율(*Tangibility*), 유동자산비율(*Curr*), 기업연령(*LnAge*), 대주주 지분율(*Largeshare*) 및 계속감사기간(*Tenure*)은 감사보수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진다.

이상 <표 3>의 결과를 요약하면, 가설 1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은 고객기업의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의 정보이용비용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에서 감사인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가설 2를 검증한 결과를 <표 4, 5>에 제시한다. 먼저, <표 4>에는 가설 1의 관계가 계속감사기간의 증가에 따라 완화되는지를 검증한 결과를 보고한다. 패널 A는 계속감사기간의 연속변수값을 이용한 결과이다. *Low\_Cp* 변수는 측정치와 무관하게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며(각각 7.866, 6.782), 이 계수값들은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계속감사기간이 짧은 표본에서 낮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은 감사보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Low\_Cp\*Tenure*의 상호작용변수는 계수값이 -0.366과 -0.309로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다(*t*-값=-2.38, -2.25). 이는 계속감사기간이 길

어질 때 가설 1의 관계가 증분적으로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인이 고객기업의 낮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감사보수에 반영하는 경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일차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감사기간이 길어져 해당 고객의 영업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낮은 비교가능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를 감사보수에 감사위험으로 온전히 반영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즉, 감사인이 이를 흡수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패널 B는 계속감사기간이 중위수보다 크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를 활용한다.<sup>11)</sup> 패널 A에서와 같이 *Low\_Cp* 변수는 측정치와 무관하게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나 *Low\_Cp\*Tenure*의 상호작용변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인다(각각 계수값=-1.511, -1.257). 즉, 감사인은 비교가능성이 낮은 경우 높은 감사보수를 수임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또한 F-test 결과 역시 패널 A와 유사하다. 즉, 지시변수를 이용한 결과도 연속변수를 이용한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주요 분석은 가설 2b를 조사한 것이다.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한다. <표 5>에서 non-big 4 감사인과 계약한 고객기업들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의 관계는 *Low\_Cp*변수의 계수값이

10)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계수값의 합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다. 우선, *Low\_Cp1*을 이용한 모형에서 *Low\_Cp+Low\_Cp\*Tenure=0*을 검증한 결과 p-value가 1% 수준에서 계수값의 합은 0과 유의하게 다르다. 이 두 계수값의 합은 7.500으로, 양의 값을 보인다. *Low\_Cp2*를 이용한 모형에서 역시 *Low\_Cp+Low\_Cp\*Tenure=0*을 검증한 결과는 p-value가 1% 수준에서 계수값들의 합은 0과 유의하게 다르다. 이 두 계수값들의 합은 6.473으로, 계속감사기간이 긴 표본 하에서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낮아질수록 감사보수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Tenure+Low\_Cp\*Tenure=0*을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계수값의 합은 -0.366이며 p-value=0.016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 유의한 통계량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낮은 표본 하에서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보수는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는 *Low\_Cp2*를 이용한 모형에서 역시 해당 계수값들의 합이 -0.309로 5% 수준에서 유의하여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11) 대체로 상호작용 변수를 이용하는 분석에서는 연속변수 대신 지시변수를 많이 활용한다. 이는 지시변수가 통계적인 해석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즉, 서로 다른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Table 4) The effect of auditor-client relationship on the association between low financial comparability and audit fees (Test of H2a)

| Panel A. Analysis using raw values of <i>Tenure</i>         |                             |              |                             |              |
|---|-----------------------------|--------------|-----------------------------|--------------|
|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LnFee  |              |                             |              |
|   | Model (1)<br><i>Low_Cp1</i> |              | Model (2)<br><i>Low_Cp2</i> |              |
|   | Coeff                       | t-stat       | Coeff                       | t-stat       |
| <i>Intercept</i>  | 4.014***                    | 32.45        | 4.023***                    | 32.58        |
| <i>Low_Cp</i>   | 7.866***                    | 9.99         | 6.782***                    | 9.78         |
| <b><i>Low_Cp*Tenure</i></b>                                 | <b>-0.366**</b>             | <b>-2.38</b> | <b>-0.309**</b>             | <b>-2.25</b> |
| <i>Tenure</i>   | 0.000                       | -0.04        | 0.000                       | -0.07        |
| <i>Size</i>   | 0.380***                    | 77.50        | 0.380***                    | 77.49        |
| <i>Lev</i>  | 0.342***                    | 11.53        | 0.337***                    | 11.33        |
| <i>Tangibility</i>  | -0.333***                   | -9.70        | -0.330***                   | -9.59        |
| <i>Curr</i>   | -0.221***                   | -5.31        | -0.218***                   | -5.24        |
| <i>ATO</i>  | 0.008                       | 0.76         | 0.008                       | 0.73         |
| <i>INVREC</i>   | 0.085*                      | 1.81         | 0.085*                      | 1.82         |
| <i>Loss</i>   | 0.046***                    | 3.84         | 0.046***                    | 3.84         |
| <i>LnAge</i>  | -0.029**                    | -2.23        | -0.030**                    | -2.28        |
| <i>Largeshare</i>   | -0.370***                   | -11.51       | -0.371***                   | -11.55       |
| <i>Big</i>  | 0.191***                    | 16.80        | 0.192***                    | 16.85        |
| <i>Kosdaq</i>   | -0.001                      | -0.07        | -0.001                      | -0.10        |
| F-tests:  |                             |              |                             |              |
| <i>Low_Cp+Low_Cp*Tenure=0</i>                               | <.001                       |              | <.001                       |              |
| <i>Tenure+Low_Cp*Tenure=0</i>                               | 0.016                       |              | 0.023                       |              |
| Year  | Included                    |              | Included                    |              |
| Industry  | Included                    |              | Included                    |              |
| Adj R <sup>2</sup>  | 0.7090                      |              | 0.7090                      |              |
| Obs.  | 5,822                       |              | 5,822                       |              |
| Panel B. Analysis using indicator variable of <i>Tenure</i> |                             |              |                             |              |
|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LnFee  |              |                             |              |
|   | Model (1)<br><i>Low_Cp1</i> |              | Model (2)<br><i>Low_Cp2</i> |              |
|   | Coeff                       | t-stat       | Coeff                       | t-stat       |
| <i>Intercept</i>  | 4.005***                    | 32.42        | 4.304***                    | 37.22        |
| <i>Low_Cp</i>   | 7.225***                    | 10.87        | 6.031***                    | 10.43        |
| <b><i>Low_Cp*Tenure</i></b>                                 | <b>-1.511*</b>              | <b>-1.87</b> | <b>-1.257*</b>              | <b>-1.76</b> |
| <i>Tenure</i>   | -0.012                      | -0.86        | -0.012                      | -0.89        |
| F-tests:  |                             |              |                             |              |
| <i>Low_Cp+Low_Cp*Tenure=0</i>                               | <.001                       |              | <.001                       |              |
| <i>Tenure+Low_Cp*Tenure=0</i>                               | 0.057                       |              | 0.073                       |              |
| Controls  | Included                    |              | Included                    |              |
| Year  | Included                    |              | Included                    |              |
| Industry  | Included                    |              | Included                    |              |
| Adj R <sup>2</sup>  | 0.7090                      |              | 0.7066                      |              |
| Obs.  | 5,822                       |              | 5,822                       |              |

Notes: 1) \*, \*\*, and \*\*\* denote the significance at 10%, 5%, and 1% level, respectively.

2) Panel A uses raw values of *Tenure* while Panel B uses indicator values. In Panel B, *Tenure* equals one if it is greater than the median value.

3) P-values are shown in the F-tests.

〈Table 5〉 The effect of Big N auditor on the association between low financial comparability and audit fees (Test of H2b)

|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i>LnFee</i> |               |                             |               |
|----------------------------|-----------------------------------|---------------|-----------------------------|---------------|
|                            | Model (1)<br><i>Low_Cp1</i>       |               | Model (2)<br><i>Low_Cp2</i> |               |
|                            | Coeff                             | <i>t-stat</i> | Coeff                       | <i>t-stat</i> |
| <i>Intercept</i>           | 4.010***                          | 32.41         | 4.019***                    | 32.54         |
| <i>Low_Cp</i>              | 7.086***                          | 11.64         | 6.109***                    | 11.54         |
| <b><i>Low_Cp*Big</i></b>   | <b>-1.775**</b>                   | <b>-2.07</b>  | <b>-1.462*</b>              | <b>-1.92</b>  |
| <i>Big</i>                 | 0.209***                          | 14.52         | 0.208***                    | 14.30         |
| <i>Size</i>                | 0.380***                          | 77.51         | 0.380***                    | 77.49         |
| <i>Lev</i>                 | 0.345***                          | 11.62         | 0.339***                    | 11.42         |
| <i>Tangibility</i>         | -0.329***                         | -9.55         | -0.325***                   | -9.43         |
| <i>Curr</i>                | -0.220***                         | -5.29         | -0.217***                   | -5.21         |
| <i>ATO</i>                 | 0.008                             | 0.74          | 0.008                       | 0.70          |
| <i>INVREC</i>              | 0.086*                            | 1.83          | 0.086*                      | 1.83          |
| <i>Loss</i>                | 0.046***                          | 3.84          | 0.046***                    | 3.84          |
| <i>LnAge</i>               | -0.028**                          | -2.14         | -0.029**                    | -2.20         |
| <i>Largeshare</i>          | -0.365***                         | -11.35        | -0.366***                   | -11.38        |
| <i>Tenure</i>              | -0.004**                          | -2.05         | -0.004**                    | -2.07         |
| <i>Kosdaq</i>              | 0.000                             | 0.02          | 0.000                       | -0.02         |
| F-tests:                   |                                   |               |                             |               |
| <i>Low_Cp+Low_Cp*Big=0</i> |                                   | <.001         |                             | <.001         |
| <i>Big+Low_Cp*Big=0</i>    |                                   | 0.065         |                             | 0.096         |
| Year                       | Included                          |               | Included                    |               |
| Industry                   | Included                          |               | Included                    |               |
| Adj R <sup>2</sup>         | 0.7089                            |               | 0.7089                      |               |
| Obs.                       | 5,822                             |               | 5,822                       |               |

Notes: 1) \*, \*\*, and \*\*\* denote the significance at 10%, 5%, and 1% level, respectively.

2) P-values are shown in the F-tests.

잡아낸다. 모형 (1)과 (2)에서 각각 *Low\_Cp1*, *Low\_Cp2*를 이용하였을 때 이 계수값은 7.086과 6.109로 1%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다. 이는 가설 1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non-big 4 감사인의 고객기업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낮을수록 감사

보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Low\_Cp\*Big* 상호작용변수는 계수값이 *Low\_Cp1*, *Low\_Cp2*를 이용한 분석에서 각각 -1.775, -1.462로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다. 이는 Big 4 감사인과 계약한 고객기업은 낮은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의

양의 관계가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2)</sup>

이상의 표들에서 보고된 결과를 요약하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낮은 고객기업에 대해 여러 결정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감사보수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감사인이 이러한 낮은 비교가능성을 잠재적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지거나 대형감사인과 계약한 고객기업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완화되고 있다. 이는 감사인이 해당 고객 및 산업에 대한 이해가 축적되어 있을 경우 비교가능성을 감사위험으로 인지하여 감사보수를 높게 수임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완화됨을 시사한다. 결국 비교가능성이 낮은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고객기업에 대한 감사경험이 적은 감사인들이 감사보수를 더 많이 수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 4.3 추가분석

#### 4.3.1 감사보수의 결정요인(감사투입량과 단위당 가격)과 비교가능성

본 연구는 가설1의 설정과정에서 낮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감사시간과 시간당감사보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감사보수를 높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전술한 결과는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의 유의한 관계를 실증하였다. 첫 번째 추가분석에서는 비교가능성과 감사시간 및 시간당보수의 관계를 살펴본다. 만약 낮은 비교가능성으로 인해 감사인이 수집해야 할 증거가 많아지고 평가가 지

연된다면 이는 입증감사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낮은 비교가능성이 선행연구의 주장과 같이 감사위험으로 작용한다면 시간당보수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적인 예측을 실증조사한다.

조사결과는 <표 6>에 제시한다. 표의 패널 A는 감사시간과 시간당보수의 자연로그값( $LnHour$ ,  $LnFeePerHour$ )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한다. 각각의 변수의 평균값은 6.966, 4.345로 선행연구의 값과 유사하다. 패널 B는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모형(1)과 (2)는 각각 종속변수가  $LnHour$ ,  $LnFeePerHour$ 이다. 관심변수인 낮은 비교가능성( $Low\_Cp$ )는 두 종속변수에 대해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값을 보고하고 있다.<sup>13)</sup> 이는 비교가능성이 낮은 피감사기업에 대해 감사인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며 높은 시간당보수를 수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4.3.2 내생성의 통제: 성향점수매칭 표본을 이용한 분석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은 서로 다른 기업 특성을 가진 그룹일 수 있다. 이는 곧 비교가능성이 아닌 이를 유발하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감사보수가 다르게 계약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이와 같은 내생성이 존재한다면 이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성향점수매칭 표본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가설들을 재검증한다.

선행연구는 성향점수매칭시 이용되는 독립변수들의 선택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

12) <표 5>에서의 F-test 결과를 살펴보면,  $Low\_Cp+Low\_Cp*Big=0$  및  $Big+Low\_Cp*Big=0$  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나 전자의 계수값 합은 양의 방향으로, 후자의 계수값 합은 음의 방향으로 각각 유의하다. 이는 대형감사인 고객기업 표본 하에서 비교가능성이 낮을수록 더 높은 감사보수가 형성되고, 비교가능성이 낮은 고객기업 표본 하에서 Big 4는 non-Big 4보다 더 낮은 감사보수를 수임함을 의미한다. 즉, non-Big 4 감사인이 낮은 비교가능성 고객에게 더 많은 감사보수를 수임한다.

13) <표 6>에서  $Low\_Cp$ 는  $Low\_Cp1$ 을 이용한 것이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Low\_Cp2$ 를 이용한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Table 6〉 The effect of low financial comparability on audit hours and hourly fees

## [Panel A] Descriptive Statistics

| Variables           | Mean  | Std.  | P1    | P25   | Median | P75   | P99   |
|---------------------|-------|-------|-------|-------|--------|-------|-------|
| <i>LnHour</i>       | 6.966 | 0.715 | 5.481 | 6.497 | 6.838  | 7.313 | 9.353 |
| <i>LnFeePerHour</i> | 4.345 | 0.376 | 3.448 | 4.120 | 4.331  | 4.560 | 5.367 |

## [Panel B] Regression tests

| Independent Variable | Model (1)<br>Dependent Variable = <i>LnHour</i> |             | Model (2)<br>Dependent Variable = <i>LnFeePerHour</i> |             |
|----------------------|---|-------------|---|-------------|
|                      | Coeff   | t-stat      | Coeff   | t-stat      |
| <i>Intercept</i>     | -0.036  | -0.28       | 4.028***  | 33.98       |
| <b><i>Low_Cp</i></b> | <b>1.409***</b>                                 | <b>3.35</b> | <b>3.647***</b>                                       | <b>8.84</b> |
| <i>Size</i>          | 0.377***  | 71.03       | 0.005   | 1.04        |
| <i>Lev</i>           | 0.177***  | 5.06        | 0.170***  | 5.50        |
| <i>Tangibility</i>   | -0.404***                                       | -10.92      | 0.076**   | 2.21        |
| <i>Curr</i>          | -0.334***                                       | -6.21       | 0.100**   | 2.23        |
| <i>ATO</i>           | 0.018   | 1.59        | -0.007  | -0.66       |
| <i>INVREC</i>        | 0.133**   | 2.44        | -0.033  | -0.68       |
| <i>Loss</i>          | 0.056***  | 4.43        | -0.012  | -1.00       |
| <i>LnAge</i>         | -0.013  | -0.93       | -0.009  | -0.70       |
| <i>Largeshare</i>    | -0.333***                                       | -8.97       | -0.021  | -0.66       |
| <i>Big</i>           | 0.299***  | 24.77       | -0.108***   | -9.34       |
| <i>Tenure</i>        | -0.010***                                       | -5.76       | 0.007***  | 3.98        |
| <i>Kosdaq</i>        | 0.002   | 0.13        | -0.001  | -0.10       |
| Year                 | Included  |             | Included  |             |
| Industry             | Included  |             | Included  |             |
| Adj R <sup>2</sup>   | 0.7186  |             | 0.0862  |             |
| Obs.                 | 5,822   |             | 5,822   |             |

Notes: 1) \*, \*\*, and \*\*\* denote the significance at 10%, 5%, and 1% level, respectively.

2) *Low\_Cp1* is used in both models.

한 자의성을 줄여야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본다(Shipman et al. 2016). 본 연구도 이와 같은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전술한 분석모형에서 이용되는 모든 통제변수들을 이용하여 성향점수를 추출한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Low\_Cp1*을 이용하여 이 변수가 상위 25%에 해당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로 놓고, 전술한 통제변수들을 독립변수로 두어 프로비트(Probit) 회귀분석을 수행한다.<sup>14)</sup> 이를 통해 가장 성향점수차가 작은 통제그룹을 매칭하여 생성된 표본을 분석

14) 집단을 중위수로 구분하면 관심집단과 대응집단의 수가 동일하여 매칭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집단과 이 집단과 가장 유사한 대응집단의 기업-연도를 매칭하기 위해 상위 4분위수(25%)를 이용한다. 다만,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Low\_Cp1* 변수의 중위수값으로 구분한 분석이나 *Low\_Cp2*를 이용한 분석의 결과에서 질적인 차이는 없었다.

〈Table 7〉 Endogeneity check: Propensity score matching test

| Panel A. Test results of H1  |                                   |               |
|------------------------------|-----------------------------------|---------------|
|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i>LnFee</i> |               |
|                              | Coeff                             | <i>t-stat</i> |
| <i>Intercept</i>             | 6.065***                          | 17.18         |
| <b><i>Low_Cp</i></b>         | <b>3.266***</b>                   | <b>3.47</b>   |
| Controls&Year&Industry       | Included                          |               |
| Adj R <sup>2</sup>           | 0.5313                            |               |
| Obs.                         | 872                               |               |
| Panel B. Test results of H2a |                                   |               |
|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i>LnFee</i> |               |
|                              | Coeff                             | <i>t-stat</i> |
| <i>Intercept</i>             | 6.006***                          | 16.99         |
| <i>Low_Cp</i>                | 6.402***                          | 3.60          |
| <b><i>Low_Cp*Tenure</i></b>  | <b>-0.820**</b>                   | <b>-2.08</b>  |
| <i>Tenure</i>                | 0.000                             | 0.03          |
| Controls&Year&Industry       | Included                          |               |
| Adj R <sup>2</sup>           | 0.5331                            |               |
| Obs.                         | 872                               |               |
| Panel C. Test results of H2b |                                   |               |
|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 <i>LnFee</i> |               |
|                              | Coeff                             | <i>t-stat</i> |
| <i>Intercept</i>             | 5.946***                          | 16.78         |
| <i>Low_Cp</i>                | 5.141***                          | 4.42          |
| <b><i>Low_Cp*Big</i></b>     | <b>-5.364***</b>                  | <b>-2.72</b>  |
| <i>Big</i>                   | 0.270***                          | 6.83          |
| Controls&Year&Industry       | Included                          |               |
| Adj R <sup>2</sup>           | 0.5349                            |               |
| Obs.                         | 872                               |               |

Notes: 1) \*, \*\*, and \*\*\* denote the significance at 10%, 5%, and 1% level, respectively.

2) P-values are shown in the F-tests.

3) Control variables are included in the models but omitted for brevity.

에 이용한다.<sup>15)</sup>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한다. 매칭으로 생성된 표본은 비교가능성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이 각각

436개로 총 872개의 표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패널 A에는 가설1을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다. 매칭된 표본을 이용하여도 *Low\_Cp* 변수의 계수값은

15) Caliper distance는 3%기준을 이용하였다. 매칭된 표본에서는 12개 통제변수들 중 11개의 통제변수에서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매칭후 표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통제변수는 5개에 불과하였으며 그 유의성 역시 크게 감소하였다.

3.266으로 1%에서 유의하다( $t$ -값=3.47). 이는 낮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유발하는 기업의 여러 특성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가 음의 관계(즉, 낮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의 양의 관계)를 가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패널 B, C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계속 감사기간이 길어지거나 Big 4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요약하면, 성향점수로 매칭된 표본에서도 본 연구의 가설들이 지지되고 있다.

#### 4.3.3 당기-당기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전술한 분석은 전기 기업 특성이 당기 감사보수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t$ 기 감사보수를  $t-1$ 기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및 기타 다른 기업 특성과 회귀분석하였다. 두 번째 추가분석에서는 이를  $t$ 기 감사보수와  $t$ 기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재분석한다. 이는 대체로 해외 선행연구들은 동일 시점의 기업특성과 감사보수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감사보수가 사전에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당기 중 발생한 유의미한 사건에 대해 감사인이 이를 당기 감사보수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 역시 매우 어색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결과는 본 연구의 전술한 주요 분석 결과를 지지하였다. 즉, 낮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은 높은 감사보수와 관련이 있고, 이러한 경향은 계속감사기간이 길거나 Big N 감사인과 계약하는 경우 증분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는 동일시점의 감사보수와 비교가능성의 분석에서도 전술한 결과를 지지함을 제시한다.

#### 4.3.4 비교가능성의 다른 대응치를 이용한 분석

마지막 추가분석에서는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비교가능성의 다른 대응치들을 이용한다. 전술한 분석에서는 비교가능성 대응치 산출시 동일 산업-연도에서 가장 높은 상위 4개의 평균을 이용한 값을 이용하였다. 이 측정치를 제시한 De Franco et al.(2011)은 동일 산업-연도의 중위수값을 이용한 결과도 추가로 보여주었다. 본 연구도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위해 중위수값으로 산출한 변수를 이용한 결과를 추가분석 한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Low\_Cp1*의 중위수 측정치와 *Low\_Cp2*의 중위수 측정치를 각각 이용한 결과는 모두 연구의 가설 1과 2a, 2b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특정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측정치에 따라 전술한 결과가 유도된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 V. 결론

선행연구는 감사보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축적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에 더불어 고객기업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감사계약 체결 시 감사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다. 또한 감사인의 특정 기업 혹은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긴 계속감사기간이나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해 회계법인 안에서 감사팀 간의 지식의 전이가 원활한 Big 4 감사인이 체계적으로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낮을수록 해당 기업의 감사보수는 높

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감사보수 결정과정에서 고객기업의 규모, 복잡성, 손실여부 등 여러 고유의 특성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은 감사보수의 결정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긴 계속감사기간과 Big 4 감사인 여부는 낮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감사보수의 양의 관계를 증분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바꿔 말하면, 계속감사기간이 짧은 감사인이거나 non-Big 4 감사인들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낮은 고객기업에 대해 높은 감사보수를 수임한다. 즉, 이들 감사인들은 낮은 비교가능성에 대해 높은 감사보수를 청구하는 것으로 타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계속감사기간이 길거나 규모가 큰 감사인이라면, 동종업계와 특정 고객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낮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감사위험으로 직접 감사보수에 반영하지는 않음을 제시한다. 즉, 감사인의 고객기업 감사경험은 낮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감사위험을 상쇄한다.

추가분석으로, 감사보수를 감사시간과 시간당보수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비교가능성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낮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은 감사시간과 시간당보수를 모두 높이는 효과가 발견되었다.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간 특성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성향점수로 매칭한 표본을 이용한 결과에서도 본 연구의 전술한 발견들이 유지되었다. 또한 당기 감사보수와 당기 혹은 전기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조사한 결과들도 질적으로 유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교가능성의 다른 대용치를 이용한 결과 등에서도 모두 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계와 실무에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진다. 우선, 감사보수 결정요인들을 조사하고 있는 선행연구에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이 추가적인 결정요인임을 제시한다. 둘째, 선행연구가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지는 효과를 감사인 독립성 훼손의 측면과 감사인 전문성 향상의 측면에서 상반되게 바라보는 상황에서 계속감사기간이 길수록 낮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효과가 완화된다는 것은 감사인 전문성의 측면을 강조하는 결과를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발견은 대형감사법인이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비교적 균일하게 제공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교가능성이 낮은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 역시 이를 감사보수에 반영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실증 발견은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회계정보를 이용하고 해석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곽영민, 백정환(2015), "K-IFRS 도입에 따른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에 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33(3), pp.55-83.
- 기은선, 권수영(2014), "회계감사에서 이익동조성의 유용성과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회계학연구**, 39(4), pp.305-348.
- 문해원, 조은혜, 최관(2016), "기업수명주기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경영학연구**, 45(1), pp.67-93.
- 오광욱(2015), "속성별 발생액의 질이 기업 간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정도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회계정보연구**, 33(4), pp.33-59.
- 이동현, 최정운, 안성희(2016), "기업 내 노동조합의 존재와 이익 비교가능성의 관계," **회계저널**, 25(2), pp.463-509.
- 주운창, 배진철, 고재민(2015),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경영자 이익 예측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20(6), pp.135-172.

- 최승욱(2016),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기업의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25(5), pp.209-241.
- 최영순, 양동훈, 조광희(2015), “K-IFRS 의무도입이 동일 산업 내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기업지배구조 특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24(6), pp. 235-276.
- 회계기준위원회(201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 회계기준원*, 2011. 7. 22.
- Bae, G. S., S. U. Choi, and J. H. Rho(2016), “Audit hours and unit audit price of industry specialist auditors: Evidence from Korea,”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3(1), pp.314-340.
- Becker, C. L., M. L. DeFond, J. Jiambalvo, and K. R. Subramanyam(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1), pp.1-24.
- Bell, T. B., W. R. Landsman, and D. A. Shackelford (2001), “Auditors’ perceived business risk and audit fees: Analysis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9(1), pp. 35-43.
- Bell, T. B., R. Doogar, and I. Solomon(2008), “Audit labor usage and fees under business risk auditing,”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6(4), pp.729-760.
- Carcello, J. V., and Z. V. Palmrose(1994), “Auditor litigation and modified reporting on bankrupt cli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2(Supplement), pp.1-30.
- Carey, P., and R. Simnett(2006), “Audit partner tenure and audit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81(3), pp.653-676.
- Chen, C. W., D. W. Collins, T. Kravet, and R. D. Mergenthaler(2018),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nd the efficiency of acquisition decision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Forthcoming.
- Chen, C., A. C. Ng, and F. A. Gul(2017), “Do Auditors Benefit from Clients’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Working paper.
- Choi, J. H., J. B. Kim, and Y. Zang(2010), “Do abnormally high audit fees impair audit quality?,”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9(2), pp.115-140.
- Craswell, A. T., and J. R. Francis(1999), “Pricing initial audit engagements: A test of competing theories,” *The Accounting Review*, 74(2), pp.201-216.
- DeAngelo, L. E.(1981),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3), pp.183-199.
- De Franco, G., S. P. Kothari, and R. Verdi(2011), “The benefits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9(4), pp.895-931.
- Dhole, S., G. J. Lobo, S., Mishra, and A. M. Pal (2015), “Effects of the SEC’s XBRL mandate on financial reporting compar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19(December), pp.29-44.
- Ettredge, M., and R. Greenberg(1990), “Determinants of fee cutting on initial audit engage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8(1), pp. 198-210.
- Francis, J. R.(1984), “The effect of audit firm size on audit prices: A study of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2), pp.133-151.
- Francis, J., M. Pinnuck, and O. Watanabe(2014), “Auditor style and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The Accounting Review*, 89(2), pp.605-633.
- Ghosh, A., and D. Moon(2005), “Auditor tenure

- and perceptions of audit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80(2), pp.585-612.
- Gul, F. A., S. Y. K. Fung, and B. Jaggi(2009), "Earnings quality: Some evidence on the role of auditor tenure and auditors' industry expertis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7(3), pp.265-287.
- Hogan, C. E., and M. S. Wilkins(2008), "Evidence on the audit risk model: Do auditors increase audit fees in the presence of internal control deficienci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5(1), pp.219-242.
- Hribar, P., T. Kravet, and R. Wilson(2014), "A new measure of accounting quality,"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19(1), pp.506-538.
- Huang, H. W., K. Raghunandan, and D. Rama(2009), "Audit fees for initial audit engagements before and after SOX,"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8(1), pp.171-190.
- Imhof, M. J., S. E. Seavey, and D. B. Smith(2017), "Comparability and cost of equity capital," *Accounting Horizons*, 31(2), pp.125-138.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2010),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 Johnson, V. E., I. K. Khurana, and J. K. Reynolds (2002), "Audit firm tenure and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9(4), pp.637-660.
- Kim, J. B., L. Li, L. Y. Lu, and Y. Yu(2016),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nd expected crash risk,"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1(2-3), pp.294-312.
- Mock, T. J., and A. M. Wright(1999), "Are audit program plans risk-adjusted?"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18(1), pp. 55-74.
- Shipman, J. E., Q. T. Swanquist, and R. L. Whited (2016), "Propensity score matching in accounting research," *The Accounting Review*, 92 (1), pp.213-244.
- Simunic, D. A.(1980), "The pricing of audit service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8(1), pp.161-190.
- Sohn, B. C.(2016), "The effect of accounting comparability on the accrual-based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35(5), pp.513-539.
- Teoh, S. H., and T. J. Wong(1993), "Perceived auditor quality and th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The Accounting Review*, 68(2), pp.346-366.
- Yip, R. W., and D. Young(2012), "Does mandatory IFRS adoption improve information comparability?" *The Accounting Review*, 87(5), pp.1767-1789.

## Does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Influence Audit Pricing?

Woo Jae Lee\* · Seung Uk Choi\*\*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association between client's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nd audit fees. We further examine whether auditor tenure or auditor size affect the relation between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nd audit fees. Auditors may be burdened with the audit contract even if their clients do not clearly violate accounting standard. For instance, possibility of bankruptcy, management conflict, extensive reliance on financial statements by external investors could be audit risks to the incumbent auditor. These engagement risks may lead auditors to be involved in a lawsuit. We suggest that lower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is one of these engagement risks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compar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is an influential factor toward audit contract that should be fully considered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information usage costs of investors or potential investors. If a firm reports highly comparable financial statements, it is predicted that the probability of depending only on the auditor's opinion would be significantly lower for an investor with a low acquisition costs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other words, an investor of a firm with lower comparability is more likely to be reliant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firm, which increases the auditor's risk of being burdened. Therein, lower compar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lead to higher audit fees.

Second, a firm that report highly comparable financial statements with other firms tend to be face less stock price crash risk. If an auditor do not recognize this in advance, it is very likely to become involved in a lawsuit. In other words, if an auditor audits a firm with highly comparable

---

\* Visiting Professor, College of Economics and Managemen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Taxation, Kyung Hee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financial statements, the likelihood of being audit failure would be relatively lower than the other cases. Collectively, we first hypothesize and predict that there exist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reporting lower comparable financial statements and charging higher audit fees.

Nex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omparability and audit fees may be strengthened or mitigated depending on auditor's characteristics. First, we expect that auditor tenure affects this association. Prior research provides two different perspective of audit tenure on audit quality. On the one hand, studies argue that longer tenure increase auditor's knowledge of the client firm that leads to higher audit quality. On the other hand, studies also insist that longer tenure impairs auditor independence. Thus, we provide a null hypothesis for testing the effect of tenure on our first hypothesis.

Previous studies document that large auditors provide high quality audit services. The underlying assumption of this finding is that the larger the size of the auditor, the greater the transfer of knowledge within the audit firm. Thereby, Big N auditors may maintain a certain level of audit service through strict quality control. Thus, we predict that our hypothesis 1 is affected by client firms those who made contract with Big N auditors.

By using firms listed in Korean stock market from year 2011 to 2016, we find that auditors charge higher audit fees to clients with lower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s expected. This finding implies that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is one of the key factors that affects audit pricing. We further find that a positive relation between lower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nd higher audit fees incrementally decreases in the presence of longer auditor-client relationship and the contract with Big 4 audito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increased expertise due to long audit contract and the knowledge transfer inside Big 4 audit firms mitigate the effect of low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reflected on audit fees. In addition, our results show that both audit hours and unit audit fee increase as the level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decreases.

Our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the following ways. First,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suggests that compar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is one of the key determinants of audit fees. Second, the empirical finding that the longer tenure mitigates the effect of lower compar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on audit fees is a result of emphasizing the increased expertise of auditors with longer tenure. Also, we provide that Big N auditors are less likely to reflect lower compar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as an audit risk by charging incrementally higher audit fees. Lastly, our empirical finding that auditors charge higher audit fees on clients who report less comparable financial statements suggests that investors need to be cautious

about accounting information of the firm with these higher acquisition costs.

Key words: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udit fee, audit hour, auditor tenure, Big 4 auditor

- 
- 저자 이우재는 현재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초빙조교수이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재무회계와 회계감사이다.
  - 저자 최승욱은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조교수이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재무회계와 회계감사이다.